

'삼바 의혹' 수사 길게 본다... "최선 다해 규명"

검찰 "중요 사건이지만 통상의 기업 사건이다" 증선위·시민단체 고발 사건 특수2부서 검토 중 삼바 분식회계 외에도 삼성 사건 다수 수사 중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를 한 협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앞서 지난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주주간 약정(콜옵션)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김태한 대표와 회계법인 등을 고발했다.

이후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고, 지난 20일 정부전자시스템을 통해 대검찰청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특수2부는 이 모든 고발 사건들을 맡은 뒤 각각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다만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특수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전력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뒤 강제수사 여부 등 수사 상황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도 직결돼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사건이지만 통상의 기업 사건

이기도 하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사건 외에 또 다른 삼성 관련 수사도 검찰에서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우종합건설사무소(삼우)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며 이견의 삼성전자 회장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배당돼 있다. 이 회장의 차명 계좌 의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금융기초 상식 교육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 '예비 대학생 위한 금융기초 상식' 금융교육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7일 김제 금산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여 30일은 농협은행 전북본부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전주 생명고교 3학년 학생을 대상, 한차례 더 금융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 내용으로는 전반적인 금융상식, 미래의 금융 등 예비대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신용관리에 대해 중점적인 교육으로 이뤄졌으며, 청소년금융교육센터는 은행원이 되어 직접 통장도 만들어 보고 고객이 되어 금융상품 가입 신청서도 작성해 보는 체험형 교육도 하게 된다. 김장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청소년들이 금융에 대한 준비 없이 사회에 진출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융교육을 했다"며,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과 친숙해지고 편리한 금융이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금융교육센터를 희망하는 학교는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마케팅팀(063-240-3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농약 꿀벌' 안전성 정밀 평가한다

농촌진흥청, 국내 환경에 적합한 꿀벌 유충 독성시험법 확립

농약이 꿀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화학물질 시험 지침을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맞게 '꿀벌 유충 독성시험법'을 확립했다고 27일 밝혔다. 꿀벌 유충은 일벌이 모아온 화밀(꽃의 꿀샘에서 분비되는 당액)과 화분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농약에 노출될 경우 발달이 지연되거나 학습 능력과 수명이 줄어드는 등 병균 전체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 등 선진국은 농약 등 화학물질에 대한 꿀벌 위해성 평가를 위해 꿀벌 성체뿐 아니라 유충까지 독성을 평가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꿀벌 유충에 대한 평가 방법과 시험법이 제대로 갖지 못했다. 이번에 확립한 시험법은 48웰플레이트(well plate)에 옮긴 유충 1일차에 로열젤리 등의 먹이를 3~6일차까지 매

일 먹임과 동시에 농약에도 노출시켜 급성(7일) 또는 만성(22일) 독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급성 독성 시험은 유충을 옮긴 지 4일차가 됐을 때 농약에 1차례 노출시킨 후 3일 뒤인 7일차에 유충 치사율을 측정한다. 만성 독성 시험은 유충을 옮긴 지 3일차부터 6일차까지 4일 동안 매일 1차례 농약에 노출시킨 뒤 8일차, 15일차, 22일차에 유충 및 번데기의 치사율과 우화율(번데기가 날개 있는 성충이 되는 비율)을 살핀다. 김병석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장은 "시험법 확립으로 농약 등록 단계에서 꿀벌 유충에서 성체까지의 안전성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며 "특히 농약에 민감한 유충의 안전성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 양봉 농가의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농협이 장애인, 미혼모,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가 전달한다.

30년째 이어온 지역사랑,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의 손길

전주농협,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미혼모시설·경로당 등에
김장김치 2000여포기·백미10kg 100여포 전달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장애인, 미혼모,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가 전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주농협 부녀회연합회원 90여명은 "백미 2,000여포기 물량의 김장을 담가 오늘과 내일, 전주시 소재 미혼모복지시설 10여곳,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60여명, 경로당 100여곳에 직접 배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주농협 소속의 여성 3단체(부녀회,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는 자체 기금으로 마련한 백미 10kg 100여포를 김장김치와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임인규 전주농협조합장은 "이웃

들에게 우리지역 농민이 손수 재배한 농작물로 직접 담은 사랑의 김장김치를 나눌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우리지역이 하나의 마을 공동체처럼 서로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4차혁명위, 2기 위원 구성... 장병규 위원장 연임

자동차·의료·블록체인·스타트업 분야 등 민간위원 '눈길'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2기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제2기 위원회는 연임된 장병규 위원장을 필두로 민간위원 19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7일부터 내년 11월 26일까지다. 민간위원들은 자동차·의료·블록체인·스타트업 분야 등 산업계와 교육·사회복지·바이오 분야의 학계

및 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뤄졌다. 당연직 정부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6명이다. 4차위는 제2기 위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12월 초 전체회의를 개최해 4차위 제2기 운영 방향과 기타 안전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